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4차 유행 본격화

1200명대 후반...전국 곳곳 속출
일주일새 53%↑ 감염이환자 30%
수도권 영어학원 관련 300명 넘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200명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영어학원 사례 관련 누적 확진자가 300명을 훌쩍 넘겼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확진자도 연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에서는 지인모임, 학원, 직장, 노래방을 고리로 한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성동구 노래방과 관련해선 지난 1일 이후 총 17명이 확진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학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0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지인 모임과 관련해선 총 14명이 감염됐으며, 한 보험회사에서도 지난달 30일 이후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 28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76명으로 늘었다.

방대본은 백화점 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대부분은 백화점 종사자”라며 “지하 식품점부터 유행이 시작됐고, 종사자들이 공용 공간을 쓰고, 환기가 어려운 데다 무증상 감염자에 장기간 노출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주시 사우나(13명), 부산 수산업 근로자(누적 85명), 경기도 가족·대천 유성구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8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관내 한 대형쇼핑몰에서 종사자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등학교(57명), 대전 노래방(45명), 부산 감성주점·클럽(37명), 제주 유흥주점(13명)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쏟아졌다.

특히 연세,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도 30.0%나 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 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만873명으로, 이 가운데 3257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4월 28일(29.9%)보다 0.1% 포인트 높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이달 말에는 일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확진자 발생 전망을 추정해 결과 7월 말 환자 수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 1400명 정도”라면서 “현 상황이 악화할 시에는 2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만 “확산이 억제되면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계속대로

이뤄지면서 방역 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면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해서 “최근 1주간 확진자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 53% 증가했다”면서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며 “비극적 이정표”라고 논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연합뉴스

전남도 농수특산물 서울서 직거래장터

AK플라자 분당점

9일~15일 최대 35% 할인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AK플라자 분당점에서 “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도가 엄선한 농수특산물 200여 품목을 시장 가격보다 최대 35%까지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대표 판매 품목은 영광 굴비·모시떡, 여수 갯감치, 곡성 쌀, 신안 갯감치·소금, 보성 녹차, 나주 잡곡류, 진도 해조류, 담양 고추장·된장 등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사전 방역을 하고, 발열 체크기도 설치한다. 또 행사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진열대 간격도 조정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운영할 방침이다.

강화촌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생산자는 판로망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는 직거래 장터를 정례화하는데 힘쓰겠다”며 “유통업체와의 고정적인 직거래망을 늘려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성남농협 등 총 7곳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 7억 9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어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됐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여행업계에 ‘공유 사무실’ 지원

삼호센터에 개소식...전국 최초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광주지역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공유 사무실’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여행업계에 공유사무실을 지원한 것은 광주시가 최초다.

광주시는 8일 오전 동구 중앙로 삼호센터 7층에서 이용섭 시장, 정순애 시장의 부장,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정길영 광주관광협회장, 16개 입주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공유사무실은 광주시가 지난 2월 여행업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마련했다. 공유사무실은 동구 중앙로 삼호센터 7층에 마련됐으며, 입차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여행사별로 1인 사무공간이 지원되며 컴퓨터, 복합기, 냉난방기, 정수기, 회의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개소식에서 광주관광협회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 지원에 나선 이용섭 시장에게 감사패

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여행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실행해왔다.

광주시는 최소한의 여행업계 유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 여행업체 생활안정자금으로 광주시 자체자원을 마련해 업체당 15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여행업체는 버팀목 플러스자금으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시대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체당 200만원씩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여행업계 종사자를 우선 채용해 지원하는 관광지원방역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4월부터는 광주지역 협력 여행사를 선별해 광주 관광상품 개발과 온라인 상품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공유사무실 지원은 광주 관광산업의 큰 축인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광주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긴급복지 기준 완화 9월 말까지 연장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위기 가구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 완화 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동일한 위기 사유에 따른 재지원은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완화된 재산 기준은 시 지역 2억원, 군 지역 1억7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생

계 지원 126만원, 주거지원 시 지역 42만원, 군 지역 24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우흥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완화 기준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1만4000가구 약 2만명에게 84억원

을 지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자체장 절반, 농지소유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장 238명, 지방의회 의원 818명으로 총 1056명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자체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지 면적은 52만㎡로, 가액은 199억여원이었다.

/연합뉴스

장성토지 (분양 매매)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

010-8660-9801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

010-6670-9800

나주 요양병원 「급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1 - 922호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인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1. 우리 구 주철동 957-9번지 일원 추상복합 신축공사 기부채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 소로2-84호선) 결정(변경) 인안(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2조 에 따라 공고요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인안(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9.

광 주 광역시 남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영구	유용	변호	제한	기타	영향	기타	종류	사용형태	비고
기타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45	대로+소로선 남구 주철동 957-10대	소로3-45호선 남구 주철동 957-15대	일반도로	전 2008.6.6 제14회(농림축산, 노조, 임업)로
변경	소로	2	84	8-10	국지 도로	145	대로+소로선 남구 주철동 957-10대	소로3-45호선 남구 주철동 957-15대	일반도로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면적(토지면적)	면적(도로면적)	면적(도로면적)	면적(도로면적)	면적(도로면적)
소로 2-84	소로 2-84	소로 2-84	소로 2-84	소로 2-84

3. 주민의견청취기간 : 2021. 7. 9. ~ 2021. 7. 22.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062-607-3912)

5. 관련도서 : 개제장(열람장소에 비치)



7월11일(일)

▲광주Kj산악회 7월

11일(일) 경기도 가

평, 명지산1252m,

연인산&용추계곡,

명지계곡 산행, 염주

체육관 06:00, 동아

병원 06:05, 롯데백

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누주장

06: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1년 6월 30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9일

주식회사 엠제이

광주 남구 봉선로 90, 4층(봉선동)

청산인 정 광 속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